

보건요원의 통합보건사업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29집(의·치의·약학편)별책

강 해 영 · 이 영 숙

우리나라 정부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실시한 국민보건사업은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중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선택된 문제 즉 결핵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계획 및 극히 미약한 모자보건사업등의 특수사업만을 강조, 실시해온 결과 사업제공의 심한 불균형 및 사업의 중복, 주요보건교육 실시의 미비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식결여와 숨어있는 건강문제의 방치등의 많은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정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특수보건사업(Specialized Public Health Service)을 지역단위의 포괄적인 전반 보건사업(통합보건사업)(Multipurpose Health Service)으로 전환하므로서 한명의 요원이 담당한 지역주민의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은 물론 보건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 및 가정방문등의 기본 보건사업까지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ICTAM(Inter - Country Technical Assistance Mission)과 I. B. R. D.(World Bank)의 후원으로 국립보건원 훈련부를 통하여 매년 1,000명씩 일선요원 훈련을 실시하기에 이르러 1983년말 현재 전체 대상 보건간호원, 간호보조원 3,568명중 3,015명의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방법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훈련부에서 3주간의 교관요원 훈련을 받은 4개지역 교관요원(간호학과 교수 및 도 보건과 감독간호원)을 중심으로 간호원은 NIH에서 이론 4주, 실습 8주, 총 12주로, 면 보건요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계속교육이 요망된다 하겠다.

본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국립보건 연구원의 박 노 예과장님과 전라남도 보건과의 양 지훈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